

「한일 교장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한 다나카 교사에게 들었다

이미지가 달라졌다

다나카 히데오 · 히로시마현립 가이타고등학교 교사



한국 고등학생과 이야기를 나누는 다나카 선생님 (오른쪽)

저는 지금까지 국제 교류와는 별로 인연이 없어서 이번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할 때에도 한국의 문화나 언어에 관해서 예비 지식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출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아 참가하게 되어 행운이었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지하철 경로석이 비어 있어도 젊은이들이 절대 앉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유교 사회이고 군대 생활을 경험한 것이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닮은 점이 많다고는 하지만 역시 다른 사회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서울에서 댄스·댄스·댄스」를 보러 갔을 때에는 교사의 경험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는

학생들의 모습보다 몇 배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그것도 아주 단기간에 보여 주는 학생들에게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언어와 문화의 벽을 넘는 계기가 된다는 것, 체험을 공유하는 것이 언어를 배우는 동기가 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교류 사업의 의의를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제 자신이 서울의 공기를 마시며 한국의 선생님들

과 고등학생들을 만나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얻은 정보만으로 이미지를 갖기 쉽지만 자신의 눈으로 보고 검증하고자 하는 노력이, 그리고 그 경험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귀국한 후, 본교는 도림고등학교와 교류 협정을 맺고 올해는 단기간 학생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경험을 살려서 교류를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9

잇는다

한일 교장 교류



한일 교장 교류 2018



2018년도에도 8월에 일본으로부터 14명이 한국을 방문하였고, 11월에는 한국에서 19명이 일본으로 와 재차 교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실시한 교류회로부터 시간적 공백을 두지 않고 쌍방에서 교류를 실시하게 되어 여러 학교 간의 교류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학교 간 교류 협정을 체결한 한국과 일본의 참가 학교】
 도림고등학교×히로시마현립 가이타고등학교, 동탄중앙고등학교×가나가와현립 야에이고등학교, 등촌고등학교×도쿄도립 히가시쿠루메중합고등학교,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도쿄도립 스기나미중합고등학교,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도쿄도립 히비야고등학교, 서울여자고등학교×간다여학원중고등학교

서로의 언어 교육과 학교 간 교류를 진척시키는 데에 열쇠를 쥐고 계시는 분은 교장 선생님입니다. 최근 3년간 43교가 참가하여 직접 보고 느끼고 얘기를 나누어 학교 간 교류를 위한 동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류
한다



← 자동 흑판 자유개



한국 교장과 일본어 교사와 (교류한다)

교육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주고 받으며 공감
이 형성되고 교류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살펴
본다



한일 중고생 교류를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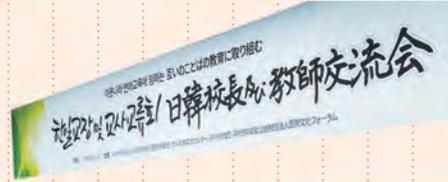
「서울에서 댄스·댄스·댄스」
를 살펴보며 서로의 언어를
사용하여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중고생들의 모습에 자신
의 학교 학생들의 모습을 겹
쳐 상상해 본다.

체험
한다



한국 생활을 (체험한다)

슈퍼마켓에 가 본다. 한국
사람들이 추천하는 과자와
라면을 잔뜩 산다.



물어
본다



한국 대학에 유학 중인 일본 대학생들에게 (물어본다)

왜 유학을 하게 됐는지, 졸업하면 어떻
게 할 것인지, 유학하며 힘든 일은 없는
지 등의 질문 공세를 한다.

만난다



일본어를 공부하는 한국 고 등학생들과 (만난다)

일본어로 학교 안내를 받으면서 열심히
일본어를 배우는 모습에 감동하여, 자신
의 학교 학생들과 교류하게끔 하고 싶은
마음이 고양된다.



참가 학교...사이타마현립 가와고에미나미고등학교, 사이타마현립 도코로자와고등학교, 지바현립 지바상업고등학교, 지바현립 마쓰도마바시고등학교, 도쿄도립 스키나미종합고
등학교, 도쿄도립 히가시쿠루메중합고등학교, 와코학원와코중학·고등학교, 가나가와현립 자마고등학교, 가나가와현립 닛파고등학교, 히로시마현립 가이타고등학교.

여름에는 한국을 방문하고 가을에는 일본을 방문하여, 교장 선생님 간의 친분을 쌓는 한일 교장 교류 프로그램은, 2017년도에도 8월과 11월에 각각 실시되었습니다. 도쿄, 가나가와, 사이타마, 지바, 히로시마의 10개 학교에서 총 11명의 교장 선생님과 국제 교류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서울을 방문하여 한국의 고

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일본어 교사, 일본어를 공부하는 학생들과 교류하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열린 한일 중고생 교류 「서울에서 댄스·댄스·댄스」를 견학하였으며 한국의 대학에 유학 중인 학생에게서 생활상을 듣는 등, 학교 간 교류를 위해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11월에는 (일반사단법인) Interna-

tional Friendship Association과의 공동 개최로, 일본어 교육을 실시하는 8곳의 고등학교에서 8명을 초청하여 도쿄와 가나가와의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견학하고 한국어 교사 전국 연수회 참가자와 정보 교환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교장 선생님들이 일본에서 다시 만나 더욱 친밀히 외국어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주고 받았음은 두말 할 나위도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개시한 지 3년. 한일 참가 43교 중에서 이미 6쌍의 12교에서 교류를 시작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상호 방문하여 홈스테이를 하는 학교도 있고 비디오 전화로 교류하는 곳도 있습니다. 각 학교가 자신의 사정에 맞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사업 내용

한일 교장 교류 프로그램
기간: 8/5(토) ~ 8/8(화), 장소: 한국 서울, 주최: 도쿄한국교육원, 가나가와한국종합교육원, 일본국제문화교류재단 (TJF), 수송 협력: ANA, 참가자: 10교 11명
* 8/7(월)에 한일 교장 및 교사 교류회를 국제교류기금 서울 일본문화센터와 공동 개최하였다.
JENESYS2017 한국 교장과 학생을 초청
기간: 11/20(월) ~ 11/28(화), 장소: 도쿄, 가나가와, 주최: (일반사단법인) International Friendship Association, 일본국제문화교류재단 (TJF), 실시: (일반사단법인) International Friendship Association, 수송 협력: ANA, 참가자: 8교에서 관리직 8명, 고등학교 11명, 인솔 교사 2명